백두산

8.15민족통일대회 기념특집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7천만 겨레여!

온 민족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열리는 8.15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통일의 염원을 담아 겨레에게 이 호소문을 보낸다.

우리 겨레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면서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대행진을 힘차게 전개해 왔다.

이번 통일대회에서 우리 겨레, 우리 민족은 뜨거운 통일열망과 단합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내외에 힘있게 보여주고 있다.

한 핏줄을 이어온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외치는 이 순간 우리모두는 뜨거운 동포애로 더 가까와지고 함께 손잡고 통일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갈 의지를 다시한번 굳게 하였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야말로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통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치이다.

우리들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앞길을 밝혀가야 한다는 한결같은 의사를 거듭 확인하였다.

남과 북의 통일운동단체들은 이번 8.15민족통일대회에서 우리 민족끼리 서로 손잡고 힘과 지혜를 합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며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연대연합운동을 적극 벌여나감으로써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고 외세의 간섭과 전쟁의 근원을 하루빨리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의 통일운동단체들은 지난 통일행사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공고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청년학생통일행사는 9월7일부터 8일까지, 여성통일행사는 9월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10월3일 ≪개천절≫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남과 북의 해당 단체들사이에 통일행사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사랑하는 동포형제들이여!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21세기는 대결과 분열로 얼룩진 과거에서 벗어나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루고 통일을 달성해야 할 대망의 세기이다.

온 겨레가 새로운 열정, 새로운 각오, 새로운 신심을 안고 민족의 대업인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사람같이 나서자.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굳건히 고수하고 더욱 철저히 이행해 나가자!

6.15공동선언에서 밝힌 ≪우리 민족끼리≫라는 대명제에 우리의 민족문제를 우리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밝은 길이 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슬기를 믿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을 실현하는 길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통일을 향해 가는 출발점이다.

대결과 반목의 낡은 때를 씻고 따뜻한 동포애로 화해와 신뢰와 단합의 손을 잡자.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힘을 모아 자주적으로 민족번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연대연합운동을 벌여나가자!

이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이루자!

통일이야말로 최대의 애국애족이다.

통일운동은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통일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마련해야 할 역사적 시기이다.

통일의 주체인 7천만 민족전체가 하나로 뭉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가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민족의 최대과제인 조국통일을 이루는 길에 힘있게 나서자!

그리하여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로 빛나는 이 땅위에 길이 번영하는 자랑스러운 통일조국을 반드시 빠른 시일안에 일떠세우자!

8.15민족통일대회
2002년 8월15일
서울

8.15민족통일대회 서울에서 개막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7천만겨레의 열의가 더욱 높아 가고 있는 가운데 8.15민족통일대회가 15일 서울에서 개막되였다.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로부터 평양에서 전통화되다싶이 진행되여 온 민족통일행사들에 이어 남측의 통일운동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우리측 대표단의 참가밑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민족의 통일의지를 다시금 내외에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개막식장은 뜻 깊은 8.15에 즈음하여 북남겨레가 공동의 통일행사를 개최하게 된 기쁨을 안고 손에손에 통일기와 ≪민족자주≫, ≪자주통일≫ 등의 글발이 새겨 진 손기발을 들고 모여 온 대회참가자들의 통일열기로 설레이였다.

개막식장에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 ≪6.15공동선언 실현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자≫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 져 있었다.

대회에는 우리측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민족화해협의회, 조선직업총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종교인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 대표들과 예술인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남조선에서 통일련대, 민화협, 7대종단, 민주로총, 로동조합총련맹, 청년단체협의회, 농민회총련맹, 녀성단체련합을 비롯한 각 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서울의 각계층 시민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남측대표들과 서울시민들은 ≪반갑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측대표단 성원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북과 남의 녀성대표들이 대형통일기를 들고 입장하였다.

≪아리랑≫ 노래가 주악되는 가운데 대형통일기가 서서히 게양되였다.

개막식에서는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우리측대표단 단장인 민족화해협의회 김영대회장은 남녘동포들에게 보내는 북녘동포들의 따뜻한 동포애적인사를 전한 다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통일의 사절로 우리 대표단을 서울에 보내주시였다고 하면서 유서 깊은 평양과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 이어 겨레의 마음과 뜻을 합치는 통일행사가 오늘 이처럼 서울에서 막을 올리게 된것은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이 낳은 또 하나의 소중한 결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기어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며 6.15북남공동선언을 고수리행해 나갈 확고한 의지를 힘 있게 과시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남측의 민화협 리돈명상임의장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개막식에 이어 민족단합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김명철부위원장과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리영희부위원장은 통일운동의 력사적 로정은 6.15공동선언을 끝까지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하는 길에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이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는 애국에 불 타는 우리 겨레, 우리 민족이며 북과 남의 각계층 인민대중이라고 하면서 오늘 통일운동은 온 겨레가 참가하는 범민족적운동으로, 북과 남의 모든 계급, 계층을 망라하는 거족적인 운동으로 더욱 힘있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자주는 통일과 번영의 길이고 외세의존은 분렬과 망국의 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민족적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민족의 앞길을 민족끼리 개척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민족의 대단결이 곧 조국통일이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는 북남공동선언

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해 계속 힘차게 투쟁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남측의 천도교 김철 교령과 통일련대 한상렬상임대표는 통일위업은 우리 민족모두가 주인이 되여 실현하여야 할 위업이라고 하면서 통일을 위해서는 온 겨레가 단합하고 단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허용하면 민족의 운명이 롱락된다는것은 력사의 교훈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겨레의 리익을 앞세우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며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민족단합대회에서는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대회에 이어 북남예술인들의 축하공연이 진행되였다.

북과 남이 하나되여 민족통일행사를 뜻깊게 치르는 공연무대에는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우리 예술인들은 무용 ≪양산도≫, ≪쌍채북춤≫, ≪물동이춤≫, ≪손북춤≫ 등 민족적정서가 짙은 종목들로 공연무대를 장식하였다.

민족의 정기가 한껏 넘쳐 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우리 겨레는 하나의 강토에서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며 살아 온 슬기로운 민족이며 이제 더는 갈라 져 살수 없는 하나의 민족임을 감명깊게 보여 주었다.

북과 남의 예술인들이 민족적정서가 풍기는 종목들을 펼쳐 놓을 때마다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무대에서는 ≪우리는 하나≫노래합창이 높이 울려 퍼지였다.

8.15민족통일대회에서는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사진전시회와 미술전시회가 진행되였다.

통일사진전시회장에는 력사적인 평양상봉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김대중대통령과 악수를 나누시는 사진과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포옹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을 접견하여 주시는 장면들을 수록한 사진들이 전시되여 있다.

전시회장들에는 또한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겨레의 자주통일의지와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풍경 등을 소개하는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여 있다.

북과 남이 출품한 사진자료들과 미술작품들은 북남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아갈 때에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대회는 계속된다.

한편 이날 저녁 우리측 예술인들은 남녘의 통일운동단체대표들과 각계각층 동포들을 초대하여 주체적이며 민족적향취가 넘쳐 나는 공연을 진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02/08/15

8.15민족통일대회 폐막

온 겨레의 기대와 관심속에 서울에서 개막된 8.15민족통일대회가 16일 폐막되였다.

대회의 일환으로 이날에도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이날 오전 북과 남의 각계층 대표들의 상봉이 있었다.

상봉들에는 우리측에서 민족화해협의회, 조선직업총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종교단체들 등 사회단체대표들과 남측에서 통일련대, 민화협, 7대종단, 민주로총, 로동조합총련맹, 청년단체협의회, 농민회총련맹, 녀성단체련합을 비롯한 단체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상봉들에서 대표들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채택후 조국통일운동에서 전환적국면이 열리고 온 민족의 통일열의가 더욱 높아 가고 있는데 언급하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리 민족끼리 화합과 단결로 통일위업을 앞당겨 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상봉들에서는 북과 남의 각계층이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뜻과 행동을 같이해 나갈데 대한 의견이 교환되였으며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북남단체들의 련대와 단합, 협력과 교류를 강화해 나갈데 대하여 론의되였다.

한편 독도령유권수호와 일본의 과거청산을 위한 북남학술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우리 력사학학회 회장 원사, 교수, 박사 허종호,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 학사 황명철, 력사학학회 회원 리학수, 남조선의 상지대학교 총장 강만길, 외국어대학교 교수 리장희, 동국대학교 교수 한상범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견지에서나 독도가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라는데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들을 들어 론증하였다.

그들은 독도가 우리의 섬이라는데 대해서는 과거 일본정부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전후 일본의 령토처리를 위한 국제협약들에도 명백히 확인되여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자들이 ≪독도령유권≫을 주장하는것은 령토팽창야망의 집중적발현이며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을 노리는 로골적인 표현이라고 락인하였다.

그들은 고유한 남의 령토를 제것이라고 우기는 일본당국자들이 지난 기간 우리 인민에게 끼친 죄악을 외면하면서 력사교과서개악놀음까지 벌리고 있는데 대하여 준렬히 규탄하고 일본이 과거죄행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보상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토론회에서는 해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특별호소문이 채택되였다.

북과 남의 대표들은 이날 예정된 모든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8.15민족통일대회 폐막식을 진행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조선종교인협의회 장재언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같은 겨레로서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 지고 있음을 뜨겁게 확인할수 있었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고 이 공동문건들이 밝혀 준 길을 따라 나아간다면 나라의 통일을 위한 훌륭한 열매를 무르익혀 낼수 있음을 깊이 체험할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대회는 민족의 통일대행진을 힘차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 어떤 경우에도 7.4공동성명에 명기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나라의 통일이 이룩되여야 하며 북남관계일정들도 이러한 방향에서 적극 진행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측의 기독교교회협의회 백도웅총무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 모두는 뜨거운 통일열망을 보여 주었다고 하면서 6.15공동선언의 기치,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하였다.

≪아리랑≫노래가 주악되는 가운데 대형통일기가 내리워 졌다.

8.15민족통일대회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정신대로 우리 민족끼리 주체적힘으로 자주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뚜렷이 보여 주었다.

한편 이날 우리 예술인들은 남조선의 각계층인사들로 초만원을 이룬 가운데 단독공연을 진행하였으며 대표단성원들은 창덕궁을 참관하였다.

남측에서는 이날 저녁 우리측대표단을 위하여 연회를 차렸다.

조선중앙통신 02/08/16

민족단합의 의지를 과시한 통일한마당

반세기가 넘도록 헤어져 살아야했던 우리 민족. 이제 다시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우리 민족이기에 서울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통일한마당행사는 민족단합의 의지를 과시해나갔죠. 그 상황을 윤정원씨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아시다시피 2002년 8.15민족통일대회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윤정원 : 민족분열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 이번 민족통일대회는 민족의 통일의지를 다시금 내외에 과시한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돌이켜보면 역사적으로 전민족적인 통일행사들은 평양에서 진행되는게 전통화되다시피 되어왔는데요.

윤정원 : 그랬죠. 주체37(1948)년에 있은 4월 남북연석회의를 시발점으로해서 평양에서 진행된 모든 민족통일행사들에 우리 이남의 대표들은 소수든 다수든 거의 다 참가를 했죠. 특히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지난해 8.15에는 우리 이남의 각당각파, 각계각층의 대표들 수백명이 평양에 가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고 조선노동당창당 55돌 행사때에는 수십명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 인사들이 평양에 가서 경축행사를 보고왔어요.

사회자 : 외세와 반통일수구세력들의 방해책동으로 해서 지금껏 서울에서는 민족통일공동행사들이 한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돼서 이번 8.15민족통일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됐고 또 북의 많은 통일사절들이 서울에 내려오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윤정원 : 내외에 널리 알려졌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에 온 통일사절들로 말하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이남의 통일운동단체들의 거듭되는 요청을 헤아리셔서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평양행사에 다녀간데 대한 답례로써 친히 보내주신 통일사절들이죠. 그래서 지난해 8.15에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때에 남북통일운동단체들이 올해 8.15통일행사를 서울에서 하기로 했던 약속이 훌륭히 이행되게 됐던 것이죠.

사회자 : 그러면 민족통일대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원 : 민족통일대회는 워커힐호텔 야외장에서 진행됐어요. 대회장은 뜻깊은 광복절에 즈음해 남북겨레가 공동의 행사를 개최하게 된 기쁨을 안고 손에 손에 통일기와 ≪민족자주≫, ≪자주통일≫ 글이 새겨진 천깃발을 들고 모여온 참석자들의 통일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사회자 : 참석단체들은 어떤 단체입니까.

윤정원 : 남측에서는 통일연대 그리고 민화협, 7대종단, 민주노총, 청년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각 단체 대표들이 그리고 북측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민족화해협의회, 조선직업총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그리고 조선종교인협의회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 대표 11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밖에 서울의 각계층 시민들도 방청으로 참석했습니다.

사회자 : 정말 큰 규모의 통일축제였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축제흐름이랄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원 : 역사적인 민족통일대회에서는 먼저 개회가 선언되었고 이어서 남북여성대표들이 대형통일기를 들고 입장을 했습니다. 통일기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겨레의 소원인 통일을 이룩하고 남북삼천리에 통일기를 높이 휘날릴 그날을 앞당겨올 다짐을 더욱 굳혔어요. ≪아리랑≫의 노래가 주악되는 가운데 대형통일기가 서서히 게양됐고 이어서 축하연설들이 있었어요. 남북대표들의 축하연설은 참 의미가 컸습니다. 특히 저는 통일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겨레의 마음과 뜻을 합친 서울통일행사에 이북의 통일사절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면서 서울통일한마당이 역사적인 남북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이 낳은 또하나의 소중한 결실이라고 한 북측 대표단단장의 축하연설을 들으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감사의 마음 금치 못했어요.

사회자 : 축하연설에 이어서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남과 북의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통일운동의 역사적 노정위에 6.15공동선언을 끝까지 고수하고 이행하는 길에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를 하고 조국통일은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해야 할 위업이며 통일을 위해 7천만 겨레는 단합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회자 : 우리 민족끼리 대단결로 통일을 이루자, 정말 지당한 결의들이였습니다. 토론에 이어서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호소문에서는 6.15공동선언에서 밝힌 ≪우리 민족끼리≫라는 대명제에 우리의 민족문제를 우리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밝은 길이 있다, 우리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슬기를 믿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을 실현하는 길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자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소문이 발표되자 참석자들은 그에 호응해서 대회장이 떠나갈 듯 박수를 치고 또 치고 그랬습니다.

사회자 : 대회에 이어서 남북연예인들의 축하공연과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통일사진전과 미술전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민족의 정기가 한껏 넘쳐나는 공연들에서 출연자들은 우리 겨레는 하나의 강토에서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며 살아온 슬기로운 민족이고 이제 더이상 갈라져 살 수 없는 하나의 민족임을 감명깊게 보여주었어요. 남과 북이 함께 출품한 사진전과 미술전은 남북공동선언의 당위성과 활력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아갈 때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자 : 그리고 보면 이번에 진행된 2002년 8.15민족통일대회는 통일문제를 기어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며 6.15남북공동선언을 고수이행해 나갈 확고한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통일대회였다고 확신에 넘쳐 말할 수 있죠.

윤정원 : 그렇죠. 서울에서 진행된 2002년 8.15민족통일대회를 통해서 우리 겨레는 남과 북은 한겨레, 한핏줄이며 통일은 6.15공동선언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하는데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구국의소리 02/08/17-18

8.15민족통일대회 서울개최가 갖는 의미

8.15광복후 57년만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8.15민족통일대회가 열렸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환희가 터져나옵니다. 얼마나 고대했던 일입니까. 얼마나 피타게 외쳤던 일입니까. 57년전 미국이 8.15를 짓밟은 그때로부터 이 땅에서는 민족공동의 통일행사가 한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4월 남북연석회를 비롯해서 남북공동의 통일행사는 평양에서 전통화되어 왔는데요. 이번 8.15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남북공동의 통일행사가 열렸거든요. 그럼 8.15민족통일대축제 서울개회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오일씨 모시고 얘기 나눠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오 일 : 안녕하세요.

사회자 : 7.23합의서에 따라 서울에서 8.15민족통일대회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행사들이 성과리에 진행됐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8.15민족통일대회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먼저 이번 서울에서 진행된 통일행사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오 일 : 그러죠. 아시겠지만 8.15광복절을 맞으며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에서 8.15민족통일대회를 비롯해서 민족단합대회, 남북예술공연, 남북미술전과 사진전 등 여러가지 8.15통일행사들이 진행됐어요.

15일에 개막된 8.15민족통일대회에 남측에서 통일연대, 민화협, 7대종단, 민주노총, 노동조합총연맹, 청년단체협의회, 농민회총연맹, 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각 단체 대표들이 참가했고 북측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민족화해협의회, 조선직업총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종교인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 대표들과 예술인들이 참석했어요.

개막식에서 남과 북의 축하연설에 이어 진행된 민족단합대회에서 남측과 북측 연사들은 6.15공동선언을 끝까지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길에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통일위업은 우리 민족 모두가 주인이 되어 실현해야 할 위업이라고 하면서 통일을 위해서는 온 겨레가 단합하고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치하게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연사들은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허용하면 민족의 운명이 농락된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민족끼리 겨레의 이익을 앞세우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며 평화와 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민족단합대회에서는 통일의 주체인 7천만 민족전체가 하나로 뭉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을 호소하는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했어요.

그리고 16일에는 남과 북의 각계층 대표들의 상봉과 독도영유권보호와 일본의 과거청산을 위한 남북학술토론회 등이 진행되고 해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특별호소문을 채택하고 폐막식을 진행했어요.

사회자 : 그러면 말이죠. 이번 서울에서 진행된 8.15민족통일대회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오 일 : 나라가 분열되어 50여년만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진행된 이번 8.15민족통일대회에 북측대표단이 참석함으로써 8.15통일행사들을 더욱 이채롭게 장식했다고 할 수 있어요. 참으로 이번 8.15서울행사에 북측대표단이 처음으로 참가한 것은 민족의 통일운동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8.15광복절에 즈음한 민족통일공동행사들이 외세와 우익보수세력,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으로 인해 서울에서는 한번도 진행되지 못했고 평양에서 진행하는 것이 전통화되다시피 되어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 8.15서울통일행사에 각계각층을 망라한 북측대표단이 참석하여 남측 대표들과 접촉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신뢰하고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민족통일운동발전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은 이남의 통일운동단체들은 물론 통일을 지향하는 각계층 민중의 통일열기를 더욱 뜨겁게 해주었고 우리 민중의 통일진군운동을 더욱 힘차게 떠밀어주게 되었어요. 바로 여기에 이번 8.15민족통일대회가 갖는 중요한 의미의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 8.15민족통일대회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단결된 위력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 일 : 그렇죠. 이번 8.15민족통일대회가 성과리에 진행된 것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위대한 활력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어요.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과 북이 서울에서 8.15민족통일대회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통일행사들을 원만히 진행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했어요.

또한 대회과정을 통해 6.15공동선언이야말로 새 세기의 통일이정표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이것은 이번 8.15민족통일대회를 통해 6.15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고 이행하는 길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자주통일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한 귀중한 열매이고 우리 민족의 확고한 통일의지를 표명한 중요한 대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회자 : 이번 8.15민족통일대회 역시 내외 분열주의세력과의 투쟁속에서 진행된 통일대회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 일 : 그래요. 이번 8.15민족통일대회가 진행되기 전부터 내외분열주의자들은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면서 동족사이에 불신과 대립, 대결을 조장하려고 음으로 양으로 책동했어요.

한나라당 대변인 남경필을 비롯해서 우익보수세력, 반통일세력은 그 무슨 ***** 뭐요 하면서 어떻게해서든지 이번 8.15민족통일대회 개최를 막아보려고 음흉하게 책동해왔습니다. 그러나 분열을 반대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남과 북의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층 민중은 내외 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하고 마침내 서울에서 8.15민족통일대회를 성과리에 진행했어요. 이것 역시 이번 8.15민족통일대회가 갖는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참으로 이번 통일행사들은 우리 민족은 이제 더이상 갈라져 살 수 없는 하나의 민족임을 뚜렷이 보여주었고 7천만 겨레의 민족자주통일운동을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했던 겁니다.

사회자 : 8.15민족통일대회는 6.15공동선언의 정신대로 우리 민족끼리 주체적 힘으로 자주통일을 반드시 이룩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대회였다고 할 수 있겠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해서 우리 민족끼리 화합하고 단결해 통일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구국의소리 02/08/17-18

조국전선 여원구의장, 아버지 여운형선생 묘소를 찾아 화환 진정

8.15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려원구의장은 14일 서울에 있는 아버지 려운형선생의 묘소를 찾아 화환을 진정하였다.

의장은 가족의 명의로 된 화환을 아버지의 묘에 진정하고 큰절을 하였다.

그는 묘앞에서 어버이수령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숙**어머님께서 자기를 나라의 훌륭한 일군으로 키워 주시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뜨거운 사랑을 돌려 주시고 오늘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 볼수 있게 은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지금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마음과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서 통일의 날을 기어이 앞당기고 다시 찾아 와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겠다고 말하였다.

의장은 15일 남녘에 있는 여러 친척들과 상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02/08/16